

배포일시	2019. 6. 28.(금) 12:00 (총 2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허복행
		전화번호	042-862-0367

대전·세종·충남 29~30일 장마 현황과 전망

- 29일(토) 아침~30일(일) 새벽, 대전·세종·충남 장맛비

대전·세종·충남: 30~80mm

※ 충남남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의 양 많겠음

※ 특히, 내일(29일) 저녁부터 밤사이 강한 비



29일 밤 기압계 모식도와 장마전선 위치

[장마 현황]

- 현재(28일 09시) 장마전선은 대한해협에서 일본열도로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.

[장마 전망]

□ 29일(토)에는 중국 중부를 거쳐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중·상층(고도 5km 이상)의 기압골과 남서쪽으로부터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는 중국 상해부근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오전에 남해안, 오후에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이 영향으로 29일(토) 아침(06~09시)에 충남남부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되어, 대전·세종·충남 전지역으로 확대되겠고, 30일(일) 새벽(03시)에 그치겠습니다.

※ 예상 강수량(29일 아침(06시)부터 30일 새벽(03시)까지)
- 대전·세종·충남: 30~80mm

□ 특히, 29일 오후~30일 새벽에는 서해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장마전선 상에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저녁(18시)부터 밤(24시) 사이 충남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,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향후 장마 전망

이후 장마전선은 일본으로 남하하였다가 다시 북상하여 7월 6일(토)~7일(일) 경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.